

# 교과서 '제주4·3' 서술 위축 '우려'

### 국가교육위 개정 교육과정 가결 속 4·3 명시 없어 '성취기준 해설' 대신 '편찬 준거'에 4·3 반영 권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결국 사라지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가결했지만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한 제주도교육청의 수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유민주주의' 표현 등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4·3을 기술할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인 편찬 준거에 4·3을 넣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돼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명시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간 국가교육위원

장을 만나고 4·3 단체 등이 교과서 4·3 기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4·3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찾아 편찬 준거를 통해 교과서에 세밀하게 4·3교육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영훈 제주지사, 4·3단체 대표 등과 함께 4·3을 개정 교육과정 명칭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5일에는 김 교육감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배웅 국가교육위원장과 만나 개정안에 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도교육청에서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족회, 제주역사교사모임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에서 삭제된 '성취기준 해설'을 부활해 4·3을 꼭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역사교사모임 등은 "편찬 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4·3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를 근거로 8중 전체에 4·3을 서술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16일 금요일 음 11월 23일 (조금)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30%
60%	성산	30%
60%	고산	30%
30%	서귀포	30%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눈비	4/7°C
모레	흐리고 눈비	2/5°C

### 흐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4~6℃, 낮 최고 기온은 6~10℃으로 전망된다. 한때 산지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7:31	달뜨기 12:48
해질 17:28	달지기 23:38
물때 만조 04:02	간조 10:09
16:44	23:38

식중독지수 경고	감기가능지수 경고
----------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음주운전 배우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잠들어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박도원(본명 박병규)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박씨와 동승자인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를 출발해 애월읍 봉성리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김도영기자



자리싸움하는 왜가리 15일 제주시 한경면 금동리 해안에서 왜가리들이 사냥에 유리한 자리를 잡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자연체험파크 개발 승인 오 도정 꽃자왈 포기한것"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승인과 관련해 꽃자왈 파괴를 우려하는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에 조성하려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추진된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으로 동북리 산1번지 일원 74만480㎡에 꽃자왈 광장, 카페승강장, 꽃자왈스윙 등의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공공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꽃자왈사람들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꽃자왈을 포기한 오영훈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꽃자왈사람들은 "지난 7월 출범한 오영훈 도정의 꽃자왈 보전 입장

에 대한 첫 행보는 꽃자왈을 파괴하는 개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으며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들어서 꽃자왈 파괴가 불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만이 가진 환경자산인 꽃자왈을 포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진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영기자

### '이동식 소화수조'로 전기차 화재 진압

제주소방본부 어제 첫 투입... 1시간여만에 종료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제주에 도입된 '이동식 소화수조'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이동식 소화수조를 이용해 1시간 30분만에 진압했다고 이날 밝혔다. >> 사진



달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쯤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함께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를 이동 조치했으며, 오전 10시쯤 현장에 공수된 이동식 소화수조에 차량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워 오전 11시31분쯤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65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 첫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만 4건에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 첫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만 4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진압 대응을 위해 이동식 수조 2점, 질식 소화포 6점, 수벽형성 관창 14점 등의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제주시 한천 제1저류지에서 대원 2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진압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물화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전기차 주변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워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장비로 무게가 가벼워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장시간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김도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수상을 축하합니다

### 대통령표창



대정읍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영미

###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회장 강맹진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새마을지도자중앙동협의회 회장 김성진



새마을지도자중문동협의회 회장 원방민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이사서영현

2022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U 서귀포시새마을회 회장 변봉남**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회장 오경석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나성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회장 백성익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회장 강금순  
서귀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 이도삼 외 새마을가족 일동